"종지 · 종파를 묻지 않겠습니다"

日프레지던트, 5월 16일 불교계 지각변동 특별보도

종파 불교 전통 변화 양상
167개 종파로 현황 증가해
종단구분서 생활밀접 선호

박영빈 객원기자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일본의 종파불교는 각 종파간의 색깔을 뚜렷하게 만들었다. 사진출처=시즈오카 불교회

종파불교로 흔히 알려진 일본 불교, 수세기 동안 종파간의 엄격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던 틀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5월 16일, 일본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일본불교가 이어오던 체계에 지각변동이 시작됐다고 특별보도했다.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6세기경이다. 전래 당시 특별한 종파가 형성되지 않은 채 단일한 교단으로 이어졌다. 이후 중국에서 천태종과 진언종이 들어오면서 8개의 종단이 생겨났고, 12세기에 들어서야 13종으로 늘어났다.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종교법인법이 실시된 1939년, 13종 28파로 세분화됐으며 최근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167개 종파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이것 또한 전통적인 종단과 그 분파만을 계산한 것으로 신흥종단과 지파를 추가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정부에서 최근 펴낸 종교통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 최대 종단은 조동종이다. 등록된 사찰의 수는 1만 4600여 개소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정토진종 혼간지파로 사찰은 1만 300여 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정토진종은 단일 종단 사찰 수만 집계한 것으로 분파를 포괄할 경우 정토진종이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도 종단의 분포와 강세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쿄는 정토종과 천태종이, 수도권인 간토지방은 일련종이 강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근대기에 불교가 박해를 받았던 남부지역의 경우 포교에 열성이었던 정토종 사찰이 강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중세부터 사찰과 관청을 겸하는 정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 호적과 신분증명을 사찰에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사찰은 지역의 중심이 됐고 해당 지역 사찰이 따르는 종단과 그 종지에 지역민들이 모두 결속돼 왔다. 이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이동시에 종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료도 남아 있다. 특히 장례에 있어서도 소속 종단 외 스님이나 사찰에 제사와 납골을 맡길 수 없는 경우는 현대에도 곧잘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종파 불교적 성향이 붕괴되고 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종교전문 저널리스트인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의 말을 빌려 "최소 2세기 가까이 지속되어 온 종파의 지각이 분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카이 스님은 "현대에도 종단에 따라 상장례를 분리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종단이나 종지를 묻지 않고 집전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찰이 관청의 역할을 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면서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집안 대대로의 종단에 대한 열성적인 신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종단을 묻지 않고 의례를 집전하는 사찰이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신도회 조직이 아닌 회원제로 운영하며 신도를 관리하고, 종파간의 차별 없는 교류가 이어지는 등의 현대적인 사찰 운영도 보이고 있다.

우카이 스님은 "젊은 세대들은 종단에 대한 구분이나 세부적인 종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불교'로만 모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히려 일본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사찰 오리들, 자연으로 돌아가다

日요보지, 5월 13일 방생 진행
〈要法寺〉



요보지에서 강으로 향하는 오리들.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교토의 고찰에서 매년 봄 특별한 풍경이 펼쳐진다. 경내의 연못에 오리 한 쌍이 정착해 매년 봄에 태어난 새끼오리들이 사찰 근처의 강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매년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둥지를 옮기는 교토의 봄 풍경을 5월 13일 'NHK 교토', '마이니치 신문' 등이 보도했다.

교토시에 소재한 요보지(要法寺)는 14세기에 창건된 일련종 계열 사찰로, 시내에 1만 2500㎡의 사역을 가진 대찰이다. 사찰의 본당 앞에 있는 연못에 언제부턴가 오리 한 쌍이 정착, 매년 봄에 새끼 오리들이 태어나고 있다.

요보지 측은 "2005년부터 오리들이 날아오고 있다. 사찰의 서쪽에 흐르는 카모가와 강에 살던 오리가 옮겨 온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주변의 소음이나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곳이라 정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했다.

올해 3월에는 12마리의 새끼오리들이 부화했다. 사찰과 지역단체들은 새끼오리들이 자라는 모습을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했다.

요보지 측은 지난해 10마리가 부화한 것에 비해 개체수가 늘었으며, 성장속도도 빠르다고 전했다. 13일 아침, 스님들과 자원봉사자, 관찰을 위해 나온 주민들의 관심 속에 이주 준비를 마친 오리들은 요보지를 출발해 카모가와강으로 향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종이박스와 우산 등으로 길을 유도했으며,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선 경찰이 직접 교통정리를 통해 도로를 건너게 했다. 출발로부터 약 2시간 후 모든 오리들이 700m 떨어진 강에 무사 도착, 행렬에 참석한 모든 참가자들이 기뻐했다.

2세의 자녀와 오리 이사를 지켜본 한 여성은 "오리가 매년 이주하는 것은 알았으나 보러 온 것은 처음이다. 내년에도 보러 오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요보지 측은 "사찰에서 태어난 생명들이 무사히 성장하고, 또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보호하는 것은 불교의 생명보호사상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이주는 예년과는 달리 새끼오리들로만 이루어져 더욱 이목을 끌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러시아 신경과학자와 대담

사후 삼매 '툭담'에 대한 러시아 과학자들과 연구



러시아 과학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텐진 잠펠 스님

5월 10일 불교전문 매체 '부디스트도어글로벌'은 달라이라마와 러시아 과학자들 간의 대담을 보도했다. 대담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사후삼매라고 알려진 '툭담'에 대한 과학적 연구였다.

툭담은 마음을 뜻하는 '툭'과 삼매를 뜻하는 '담'에서 유래한 말로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는 뜻이다. 육신은 의학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으나 수행자의 의식이 아직 몸 안에 남아 깊은 삼매에 들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후 삼매에 든 수행자는 사후 경직, 부패 등의 사망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달라이라마는 2018년부터 툭담에 든 수행자의 신경생리학적 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대화는 러시아 과학자들과 러시아 세이브 티베트 재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대담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인도에선 최근 툭담을 보인 스님이 나온 규뙤사원과 툭담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러시아에선 러시아 세이브 티베트 재단,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뇌 연구, 러시아 과학센터 등에서 참석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는 더 많은 툭담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 현상이 과학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보통 불교에선 사람이 죽으면 몸을 구성하는 4대 원소가 해체되면서 몸이 굳거나, 체온이 식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은사였던 링 린포체는 13일 동안 툭담에 머물렀고, 최근 규뙤사원의 한 스님은 37일 간 툭담에 머물렀다. 이는 우리가 직접 관찰 가능한 현실이다. 직접 보고 측정 가능한 증거가 있다"며 과학자들이 "이 모든 것을 참작해 툭담에 대한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지금까지 사후 삼매의 단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에선 뇌과학자들과 법의학자들이 초빙되기도 했다.

툭담 이외 대담은 광범위한 주제로 진행됐다. 그 중에서도 명상 중 뇌의 기능과 정서적, 정신적 행복, 마음의 평화 유지, 환생과 전생에 대한 기억 등 다양한 대화가 이어졌다. 달라이라마는 환생과 연속되는 의식의 시작에 대한 질문에 "환생은 의식을 수반한다. 의식은 의식의 순간의 연속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본질은 명확성과 인식이다. 모든 의식 있는 생물의 마음은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의식의 시작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의식의 시작을 이전 의식인 양립 가능한 원인부터 찾아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의식의 근원이 의식의 이전 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의식의 시작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리의 가장 미세한 의식은 시작도 끝도 없다"며 불교의 무시무종 개념을 설명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英, 연극으로 부처님 생애 배워요

미션스쿨, 종교 수업 화제



인도와 네팔의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커클랜드 아카데미 재학생. 사진출처=뉴스 앤드 스타

영국 컴브리아주 커클랜드에 소재한 기독교 미션스쿨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가르쳐 화제다. 지난 14일 컴브리아주 지역 타블로이드 신문 '뉴스 앤드 스타'는 커클랜드 아카데미의 불교수업을 보도했다.

커클랜드 아카데미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학교지만,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의 전통종교를 존중하는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학생들은 불교, 힌두교,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를 체험하는 교육을 받는다.

커클랜드 아카데미 수잔 러드 교장은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불교, 힌두교, 시크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는 더 이상 이질적인 문화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수업 배경을 설명했다.

14일 학교에서 진행된 불교수업은 아이들이 직접 인도와 네팔의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음악을 사용해 연극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은 직접 마음에 드는 전통 의상을 골라 입어보고, 자신들이 상상하는 부처님과 그 주변인으로 분장했다.

수잔 러드 교장은 "아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와 전통, 그리고 삶의 방식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했다. 기독교 뿐만 아니라 타종교에 대해 배우는 것이 우리 학교의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불교수업은 대성공"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교육에 참여한 교직원들 역시 "너무나 아름답고 편안한 하루였다. 아이들만 불교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도 불교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참 나를 찾는 행복이 가득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법화신행도량 우리절 대법화원
BTN 불교TV 진심법문 방송 도량
상담문의 : 051) 892-500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32번지 용성빌딩 5층 (구 부산은행)

오시는 길


불교교육 시민선방

대풍 범각스님의 진심법문 YouTube 대풍범각TV

불자여러분!
한국불교 대표방송인 BTN불교TV에서 '진심법문'을 인기리에 강설한 대풍범각스님께서 그동안 닦아온 수행경험과 법력으로 불자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특화된 불교 신행 전문포교원 "우리절 대법화원"을 개원합니다.

첫째, "우리절 대법화원"에서는 주지 대풍범각 스님의 진심법문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스님들을 초청설법을 통하여 불자여러분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절 대법화원"은 불교의 진리와 신행을 배우고 익히는 포교원일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익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도, 서예, 꽃꽂이, 불화그리기, 노래, 선 체조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열어 불자님들의 불성과 인성계발은 물론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생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이 가득한 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셋째, 주지 대풍범각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방법'과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오랜 신행 속에서도 깨달음이 열리지 않고 삶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대법화원'의 주지 대풍범각 스님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신다면 분명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시게 될 것 입니다.

불자여러분! "우리절 대법화원의 개원법회" 소중한 여러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귀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회주 : 서해 흥교 큰스님(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주지 : 대풍 범각 스님(견불사, 실상선원, 사천왕사, 대각정사 창건주)



[주지 대풍범각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출가
● 흥교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 견불사·실상선원·사천왕사·대각정사 창건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미국코웬대학교 명예 종교학박사
● 현)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이사장
● 현)붓다아나명상대학 학장
● 현)대한불교자비공덕회 대표
● 현)대각정사·사천왕사·대법화원 주지
● BTN불교TV "진심법문"강의

함께 하실 가족을 모십니다.
● 공 양 주 : 1명
● 종무직원 : 1명 (유경험자 우대)
문의 : 051)892-5000